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3.14(금)

유 럽

○ **英, 외국영향력등록제도(FIRS)* 규제 대상에 '이란' 포함 예정**

- 3.6 언론은 영국이 自國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△이란 정보부 △이슬람혁명수비대 등을 포함한 이란 국가 전체를 FIRS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자 이란은 영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

* Foreign Influence Registraion Scheme는 특정 국가에서 외국 정부·단체·개인이 자국 內 정치·경제·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,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

○ **스페인, 파키스탄 출신의 테러 용의자 10명 구금**

- 3.10 스페인 당국은 自國에서 활동하며 △테러자금 지원 △조직원 모집 등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의 용의자 10명을 구금하였으며, 이들이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테러단체를 지지하며 폭력적 지시를 유포했다고 발표

미 주

○ **美 대통령 경호국, 백악관 근처에서 무장 남성 제압**

- 3.9 언론은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대통령 비밀경호국과 대치하다가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, 사건 당시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州에 이동해 백악관에 없었다고 보도

※ 비밀경호국은 자살 징후가 있는 무장 남성이 워싱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사전 파악하여 백악관 주변을 수색 중 용의자를 발견했다고 부언

○ **美, 테슬라 차량 4대에 또 방화 발생**

- 3.11 언론은 美 시애틀의 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이버트럭 4대가 동시에 불타는 일이 발생했으며, 테슬라 CEO 「머스크」는 이 사건을 '테러'로 단정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민주당 단체들의 공격임을 거듭 주장했다 보도

중 동

○ **후티, 가자지구 지원 차단 관련 이스라엘에 공격 예고**

- 3.8 언론은 예멘의 親이란 반군 후티의 수장 「알후티」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단을 4일 이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 경고했으나,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**소말리아, 중부 호텔서 폭탄테러로 최소 6명 사망**

- 3.11 언론은 소말리아 중부의 한 호텔에서 차량 폭탄테러로 최소 6명이 사망했고, 테러 공격 후 무장괴한과 군·경 사이에 결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으며, 알샤바브는 이날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보도

아 태

○ **호주, 17세 소년이 산탄총 들고 여객기 탑승 시도**

- 3.7 언론은 호주 애벌론 공항에서 산탄총을 든 17세 소년이 항공기 정비사로 위장하여 여객기에 타려다 승객과 승무원에 제압되었으며, 경찰은 소년이 공항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활주로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

○ **태국, 총격·폭발물 동시다발 공격으로 5명 사망**

- 3.10 언론은 태국 남부 나라티왓州 꼴록지역에서 무슬림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경단 사무실에 소총을 난사하고, 인근 지역 도로에서 폭탄을 터뜨려 5명 사망·12명이 부상당하였다고 보도

○ **파키스탄, 라마단 해제 직후 자살폭탄테러로 민간인 12명 사망**

- 3.5 언론은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콰州에서 무장단체 차량이 폭발물을 싣고 군 시설로 돌진해 민간인 1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으며, 라마단 금식을 마치고 저녁 식사와 기도하는 사람들로 밀집돼 있어 피해가 컸다고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英, 런던 웨스트민스터-국회의사당 차량돌진 테러

○ '17.3.22 英 런던 웨스트민스터와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차량돌진 後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경찰을 흉기로 찌르는 공격으로 사망 5명, 부상 50여명 발생

* 한국인 관광객 5명 부상(중상 1, 경상 4)

○ ISIS는 同 공격의 주체가 ISIS 소속이며, "이번 작전은 국제동맹군 국가의 시민을 공격하라는 부름에 응한 것"이라고 주장

- 하지만, 런던 경찰은 英 출생의 52세 남성 「칼리드 마수드」가 온라인 극단주의 영향을 받아 단독으로 실행한 범행으로 판단

○ 당시 「테리사 메이」 영국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"이번 공격은 영국의 민주주의를 겨냥한 공격이며, 영국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"이라며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 선언

⇒ **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전·선동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실행 가능성 조기 식별을 위한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**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폭력적 극단주의(Violent Extremism) >

■ **(개념)** 특정 이념, 종교,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용하는 극단적인 행동과 사상을 의미

※ UN : 정치적, 종교적 또는 이념적 신념을 바탕으로 폭력을 조장하거나 수행하는 행동

■ **(주요유형)**

- 이슬람 극단주의(Islamic Extremism) : 종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지하드 수행
- 극우 극단주의(Far-Right Extremism) : 인종·민족 우월주의에 기반한 폭력적 행동
- 극좌 극단주의(Far-Left Extremism) : 反자본주의·反정부 이념을 바탕으로 폭력적 혁명 추구
- 민족·분리 극단주의(Ethno-Nationalist&Separatist Extremism) : 특정 민족·국가의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
- 개인적 극단주의(Lone-Wolf Terrorsim) : 조직과 연계 없이 개인적으로 극단주의 이념 실천

■ **(주요원인)** ① 정치적(정부의 독재, 부패 등) ② 사회적(차별, 소외, 불평등), ③ 경제적(실업, 빈곤, 경제적 불안정) ④ 심리적(정체성 위기, 급진적 이념 수용) ⑤ 온라인 극단주의(인터넷,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전·선동)